

# ‘신고 누락’ 법적 공방... 목포 용해동 봉안당 증축 ‘시끌’

### 학교 옆 위치해 민원 빚발...비대위·주민들, 절차상 문제 제기 담당 공무원 직무 유기 고발...목포시 “허가 받드시 필요한 것 아냐”

목포시 용해동 소재 묘지 관련 시설인 봉안당 증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장까지 접수돼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봉안당은 학교 옆에 위치해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난 2022년 봉안당이 대규모로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이들은 봉안당 저지를 위해 법적투쟁도 불사한다고 입장이어서 마찰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와 용해동 주민 등에 따르면 A추모원은 올 1월 목포시 용해동 소재 산21번지 일원에 연면적 1657.87㎡에 건축면적 826.12㎡의 봉안당을 증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 봉안당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공사 전에 이뤄져야 할

설치 신고가 뒤늦게 이뤄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고발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실제 목포시에 제출한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 신고서 절차안내에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통지토록 명시돼 있다. 또 설치도와 구역도, 설치계획도 등도 포함하게 돼 있어 공사 전에 선행해야 할 절차란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관련 법률 또한 봉안당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화장시설 또는 시설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공자 또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수백 명의 목포시민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설치신고 이행사항

을 통지해 법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며 직무유기 등으로 함께 고발된 상태다.

고발인 B씨는 고발장을 통해 “봉안당 허가는 종합민원에 해당해 건축물 자체가 묘지 관련 시설로 허가를 취득해야 하므로 일반 건축물과 다른 특수 목적건물에 해당해, 착공 전 설치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봉안당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봉안당 증축과 관련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 절차상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이뤄져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것처럼 느껴진다”며 “담당 공무원도 함께 고발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시설봉안당의 설치 신고 시 건축물이라고 해 설치신고 전 받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증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봉안당.

## 해남군, 日 가고시마서 ‘고구마 산업’ 협력 모색

### 생산·가공 선진 기술 시찰 국제 협력 방안 등 논의

지리표시 제42호 ‘해남고구마’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품질의 고구마로 도약을 시작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가 1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가고마 주산지인 가고시마현을 방문, 고구마 생산 및 가공 관련 선진 기술을 시찰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명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NPO고구마월드 센터 및 동아시아 고구마 친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가고시마현청과의 기술교류와 고구마 재배, 유통, 판매, 브랜드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구마 체험관광 전문식당, 가공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고구마 가공 산업의 다양화와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고구마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고구마 주산지이다. 특히 고구마 술을 비롯한 100여종의 고구마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까지 연계해 고구마 산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방문단은 고구마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농협 농산물 직매소와 NPO고구마월드 센터에서 운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해남미남축제 행사장 전시관을 찾아 고구마 중요도를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영 중인 고구마 가공식품 현장 및 고구마 요리 판매 레스토랑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방일을 통해 품질 차별화와 다양한 가공 가공식품을 반영해 고구마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해남고구마가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다”며 “해남 지역에 적합한 고구마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 그리고 지역 내 고구마 가공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은 전체 생산면적에 무균 조제배양묘를 보급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운영과 고구마 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신산업 확대 등 해남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전력해 왔다.

특히 2025년까지 삼산면 평활리에 3만㎡(약 9090평) 규모의 고구마연구센터를 완공해 고구마 우량품종 선발과 재배 기술개발 연구를 총괄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해남군 ‘ESG 선도’ 지자체 자리 매김

### 농식품 경영대상 우수상... ‘기후변화대응 노력’ 지자체 유일 수상

해남군이 2024 대한민국 농식품ESG 경영대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정, 다함께 실천하는 뉴비바 ESG’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은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는 기업과 관계기관 등에 수여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농축산업과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 군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민선8기 해남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해남형ESG 윤리경영을 군정에 도입, 청정환경(E)·사회공헌·상생협력(S)·신뢰경영(G) 실현과 함께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농업단체를 조

성하고, 저탄소 농업의 적극적인 도입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전국 최대 친환경인증면적(4764ha)을 보유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가치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해남미소 쇼핑몰 직영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군수품질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먹거리지수 최우수 달성 등 지역 먹거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해남군이 농어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ESG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2026 프레 해조류박람회’ 개최 시동

###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자원 가치 재창출 등 논의

완도군이 ‘2026 프레(Pre)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완도군은 최근 신우철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해조류박람회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에 대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026년 5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은 프레 엑스포(Pre-EXPO) 형식의 박람회 기본 구상과 행사장 조성 계획, 콘텐츠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보고했다.

특히 완도군의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등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재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완도군은 내년 1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박람회 계획을 더



신우철(가운데) 완도군수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6 Pre 완도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제행사 승인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8 국제해조류박람회 유

치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완도군이 국내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임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완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세계 전문가들 신안서 철새 보전 방안 논의

### 국제철새심포지엄, 21일 영국·일본·홍콩 등 150여명 참여

신안군이 오는 21일 신안 자은도에서 영국, 일본, 홍콩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국립공원공단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안군과 다도해에 분포하는 철새 서식지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으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어 국제적 보호 가치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철새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전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신안군이 지난 2007년부터 동아시아 철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오고 있고, 올해는 세계 각국의 철새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는 세계의 철새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국제기구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지부 전 대표 노리타가 이치다 박사, 일본의 일본바닷새 연구 권위자인 후타이도 대학의 와타누키 유타카 교수, 일본 조류연구소 심바 찬 선임연구원과 홍콩 야생조류협회장 양통 유 박사가 연사로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장인 황보연 박사와 바닷새연구소 대표 김미란 박사, 국

립생태원 전임연구원 이은경 박사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조류학회 회원 등 조류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안군은 국내에 기록된 조류 600여 종 중 420종 이상이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다.

갯벌이 서식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바닷새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어 철새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신안군의 철새 주요 서식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은 올해가 13회째로 철새를 위한 국내 최장기 심포지엄으로 철새의 핵심 서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신안군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공동 개최하는 국립공원공단 함께 신안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시의료원, 29일까지 비상임이사 공모

목포시는 12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목포시의료원 차기 비상임이사를 29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는 차기 이사 임명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통해 공모 방법 및 후보자 추천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사 후보자는 ▲목포시의회 ▲지역보건의료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등 총 6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사 임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12월에 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임용 후에는 의료원 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응모는 목포시 누리집(www.mokpo.go.kr)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목포시 원산로45번길 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위생과(061-270-8943)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신안 ‘교통안전 정착’ 모범운전자회 발대

신안경찰(서장 이현준)은 지난 13일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경찰업무 협력단체인 신안모범운전자회를 창단, 발대식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남 모범운전자회장, 전남 녹색어머니회, 신안군 교통지원과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신안 모범운전자회(회장 박진담)는 30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베스트 운전자 6명으로 구성되어

미약한 출발이나 지속해서 지역교통문화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모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준 신안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 창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신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들과 전남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차의 교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